

## 공매도 제한규정에 대한 헤지펀드업계의 비판

- 지난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통한 매매차익 편취를 위해 주가하락을 공모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
- 이에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, 또한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
- 하지만 헤지펀드업계는 공매도 비판자들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헤지펀드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으며, 공매도의 순기능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고 반박함

- 지난해 헤지펀드들에 의한 공매도 조작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,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
  - 지난해 헤지펀드들이 은행주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문을 퍼뜨리고, 그 다음 은행주를 공매도 함으로써 그 차익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됨
    - 지난해 4분기 은행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음
    - 공매도자들은 빌린 주식을 매도하고, 매도가 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그 매매차익을 얻음
  - 이에 각국의 금융감독당국들은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고, 또한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
    - 미국, 영국 등 각국의 금융감독당국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공매도 제한 및 공시강화 규정 등을 도입하였고,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음
- 이에 대해 헤지펀드업계는 공매도 비판자들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헤지펀드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함
  - 헤지펀드인 Kynikos Associates(이하 KA)의 설립자 Jim Chanos는 금융감독당국이 헤지펀드에 의한 공매도 조작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공매도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함
    - 40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펀드인 KA는 지난 2000년 11월 Enron 주식을 최초로 공매도한 헤지펀드들 중 하나임



- Chanos는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떤 조작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,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함

□ 또한 헤지펀드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이 도입한 공매도 제한규정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함

- Chanos는 헤지펀드가 정책입안자들에게 구조화금융(structured finance<sup>1)</sup>), 부동산 대출 등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문에 대해 공매도를 통해 사전에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함
  - 지난해 상당수 공매도자들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예상하여 은행주의 가치 하락에 베팅을 했음
  - 이에 대해 은행들은 처음에는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없거나 또는 자본을 확충하면 그만이란 식으로 언급했음
  - 하지만 은행들의 부실규모가 원래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결국 추후 은행들에 의해 직접 공시되었음
  - 이에 대해 Chanos는 은행들이 악의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고의과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언급함
- 또한 Chanos는 공매도자, 내부신고자, 저널리스트 등이 지난 수십 년간 금융사기사건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함
  - 지난 25년간 미국에서는 내부신고자, 저널리스트, 공매도자가 아닌 감독당국, 회계법인, 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 밝혀진 금융사기사건은 거의 전무함
- 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당국들이 공매도 제한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공매도의 이러한 순기능이 일정부분 제한받고 있음

연구원 이장균

1) 구조화금융이란 다양한 금융상품들과 위험관리 수단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자금수요자나 공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금융구조를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함